

부산덕문중학교

박재문 교사

지난 해 한국천문연구원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최 한 '제1회 아마추어천문인 공로상' 교사 부문을 수상한 박재 문 씨는 현재 부산시 가덕도에 위치한 부산덕문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부산이라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 마을에서 박재문 씨를 만났다.

올해로 본격적인 별 생활을 시작한 지 10여 년쯤 되었다는 박재문 씨. 어렸을 적에도 별에 관심은 많았지만 잘 알지 못했고, 주변에 접할 정보도 별로 없어서 깊이 빠져들지는 못했었다고 한다.

"1990년에 우주소년단 지도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끼리 조직을 나누었어요. 그 때 제게 주어진 임무가 별자리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죠. 모릅니다 못 가르치니 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별자리 전문가들 옆에서 귀동냥을 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읽는다고 했나요. 그렇게 귀동냥하면서 책보며 공부하고 나니 그때부터 혼자 밤하늘을 봐도 별자리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후 부산 지역 중학생들 교육을 시작했죠. 딥스카이 쪽도 관심을 가졌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별자리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활동을 시작한다.

"지금은 고인이신 전 허문도 회장님, 박석재 원장님, 천문우주기획의 이태형 사장님과 함께 아마추어천문학회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뜻을 갖고 모였습니다. 허문도 회장님이 4대 아마추어천문학회

회장을 맡으시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산 지역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별을 보는데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별 생활 10년

박재문 씨는 아마추어천문학회의 조직을 관리, 홍보하고, 행사 때면 진행을 도맡았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중소도시 별의 축제 등 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별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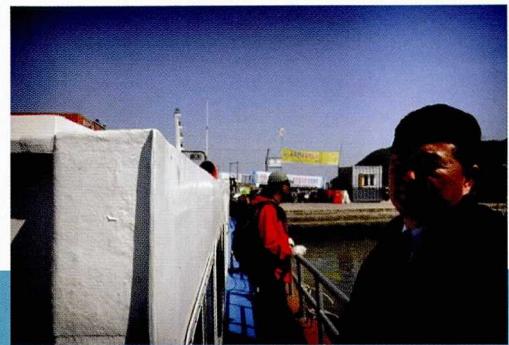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신없이 바쁘고 힘도 들었지만 정말 보람도 큰 시기였거든요. 하늘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매년 큼지막한 혜성이 나타나 큰 볼거리를 제공해줬으니까요."

지금도 여러 행사를 구상하고 진행 방안을 찾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데, 바람이라면 그런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 별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



본격적으로 별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째라는 부산덕문중학교 교사 박재문 씨.



»올해로 3년째 섬생활을 하고 있는 박재문 씨는 이곳 아이들의 순수함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말한다.

입니다.”

중학교 교사인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문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 중에 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별자리 조금 설명하고, 망원경의 구조까지 나오면 절래절래 고개를 쳤습니다. 천문에 관한 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수준은 비슷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로 거리를 멀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을 정도만을 전달해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한 게 ‘찾아가는 천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예산 문제로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교육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한다. 또한 지역 수련원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낯익은 얼굴들을 보게 된다.

“들었던 얘긴데 또 왔니 하고 물으면,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별 얘기가 있는 곳은 올 때마다 즐겁다고 하십니다. 요즘 여러 종류의 캠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비용은 비싼 반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별을 주제로 한 캠프는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 꿈은 두 가지였다고 한다. 장군과 선생님. 지금 교사가 되었으니 큰 꿈 하나는 이룬 샘이다. 자라면서 대학 때 소원은 살찌는 것이었다. 지금은 살을 빼야 할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학창 시절에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만큼 마른 체형이었다고 한다.

훌륭한 선생님 되기

“뒤에서 보면 호리호리한 여자로 볼만큼 날씬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이 쪘으니 두 가지 소원은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원이 있는데 그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을 엄하게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어울리고 놀 아주고 해야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더구나 제가 가르치는 과학 과목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 좋은 선생님이 되기는 더 어렵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재미있는 얘기만 머리에 기억합니다.”

박재문 씨는 이런 반응의 원인으로 컴퓨터의 영향을 꼽는다. 컴퓨터

로 인해 감각적이고, 단순하며, 쉬운 것만 찾으려는 경향이 수업 시간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산덕문중학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에 있다. 그러나 이곳을 찾으면 여기가 부산이라는 생각이 안 듦다. 덕문중은 가덕도라는 섬에 있다. 육지에서 멀지 않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담임을 맡았을 때는 밤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별도 보고, 과자도 사주고 했었습니다. 도심에서 제법 멀어진 곳인 만큼 공기가 맑습니다. 날씨 맑은 날은 별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시내 아이들에 비해 아직은 순수해요.”

현재 육지와 가덕도를 잇는 다리가 건설 중이다. 다리가 완공되면 도시와의 접속도 많아지고 하면 아이들의 이런 순수함에 때가 묻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니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란다.

인생의 네 번째 소원

박재문 씨는 현재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부회장과 부산 지구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직책에 맞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

“섬이라는 지역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학교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보니 별과 관련한 활동에 매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점에 대해 늘 미안하고 안타깝죠. 제 네 번째 소원이 있다면 10여 년 전처럼 별 행사도 많이 하고, 별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늘어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씨는 바쁜 생활 중에도 대학원에서 환경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별을 보니 자연히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리산 같은 곳에 가면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밝은 별도 찾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며 꿈을 키웠는데, 환경 오염이 이런 꿈마저 앗아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딸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아빠처럼 훌륭한 별 선생님이 될 거라고 얘기했었답니다. 참 마음이 뿌듯했죠.”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학생들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별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박재문 씨는 섬으로, 육지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